

"훨씬 더 힘든 길을 택하신 주님"
Lord who chose a much harder path
(시편 Psalms 31:5-10, 21-24)

우리는 종려 주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Holy Week) 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며 두 개의 장면이 제 머리 속에 다시 깊게 새겨 집니다. We observe one week from Palm Sunday to Easter as Holy Week. It is the time to remember and commemorate the passion and death of the Lord, and His coming back to life. Meditating on the book of gospel, two scenes are deeply engraved again in my head.

[장면 1]

주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머리 위에 짓눌러 얹어 놓습니다. 경례하며 소리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무릎 꿇고 절합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Scene 1]

Putting a purple robe on Jesus, they made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Saluting and shouting out, “Hail, king of the Jews!” Striking the Lord’s head with a staff, they spit on Him. They bow down on their knees. After mocking Him completely, they take off the purple robe and put the His clothes back on the Lord.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주님의 옷을 갈아 입히는 장면이 생생하게 눈 앞에 그려 집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모임의 성격, 시간과 장소에 걸맞게 차려 입는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비싼 옷, 멋진 옷도 가끔 잘 어울리지 않는 천덕 꾸러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공관 뜰에 사형수로서 서있는 예수의 옷차림이 그랬습니다. 군인들의 임금놀이가 시작됩니다. 사형수 예수에게 임금 분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실컷 구타하고, 다시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정신적 수모를 당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깊은 아픔이 밀려옵니다.

This is the passage I read during every Holy Week. But this year, the scene of changing the Lord’s clothes appears vividly before my eyes. To wear good clothes means putting on clothes that fit the occasion. No matter how expensive or fashionable the clothes may be, sometimes they are not wanted if they don’t quite fit the occasion. The clothes of Jesus who was standing in the court yard as a prisoner to be executed, was like that. The soldiers’ game of playing the king starts. They dress up Jesus sentenced to death, and pretend He was king. They hit Him repeatedly saying, “Hail to king of the Jews!” and then pay respect again. “Hail to king of the Jew!” He is shamed mentally that goes beyond the unbearable physical pain. The deep pain the Lord had to bear is overwhelming.

[장면 2]

지나가던 행인들, 아마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들도 가세합니다. “당신

자신이나 구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Scene 2]

Those who passed by, perhaps the same people who praised “Hosanna!”, holding palm tree branch. They too join in. “Try to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He saved others but he cannot save himself!”

주님은 이처럼 지독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훨씬 더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The Lord, despite such harsh scorn and mocking, endured the cross to the end. He is hung on the cross to love me and you to the end. Holy Week is the time to give up ‘a much easier’ choice that is jumping down from the cross.

종려 주일입니다. 한번 귀기울여 들어보세요. 멀리서 환영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기쁨으로, 들뜬 흥분으로 입었던 겉옷을 길에 펼쳐 놓습니다. 싱싱한 나뭇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 놓습니다. 마치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며, 온동네가 정말 난리가 났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다섯개로 굶주림을 달랠 기적의 임금님을 기대했지요.

This is Palm Sunday. Try to put your ears to listen. The sound of welcoming from a distance being echoed out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 very large crowd joyfull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ith excitement. They roll out a red carpet with fresh tree branches on the road the Lord is entering. As if greeting a triumphant king on his return, they stirred up the whole city. What the Israelites really needed was not Christ but a king. They were expecting a king of miracle to make wine with water, and feed the hungry with five loaves of barley bread.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가져 올 ‘정치적인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겪었던 고통의 무게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힘껏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어쩌면 이 호산나는 환영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외침,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호산나! 우리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호산나! 어서 빨리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They are still being suffocated by temporal problem they are faced with. They mistake Jesus as a ‘political leader’ who can free them from the Roman oppression and that he will now bring the end of misery and the beginning of happiness. They shout their hearts out desperately and earnestly matching the weight of hardship they have endured.

‘Hosanna! Hosanna!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It could have been this Hosanna was closer to crying out or scream coming from a deep suffering than welcoming.

‘Hosanna! We are about to die.’

‘Hosanna! Perform a quick miracle to save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해결사’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꼭 가셔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 임금이 되주세요.

호산나 외침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죽음을 향해 한 걸음 씩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how is your state of mind to greet the Lord now on this Palm Sunday? Are we not also waiting for Jesus ‘Genie, the problem solver’ like Israelites? Out of despair, are you waiting for the Lord like holding onto the last straw in the midst of drowning? Of course, our Lord becomes a firm savior for you and me. But there is a road that the Lord must walk on to become our savior. It is a place called Golgotha, the road to the cross. The Lord is entering Jerusalem today to carry the cross. Hosanna! Hosanna! Please be our king. In the midst of shouting Hosanna, the Lord is moving forward toward death in silence step by step.

우리는 이번 한주간을 Holy Week, 거룩한 주간 또는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묵상했습니다. 매년 우리는 너무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굵은 가시관에 짓눌린 예수님의 지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진홍빛 핏방울. 손과 발에 박힌 거친 대못,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잔혹한 고통. 굼직한 창에 찢려 옆구리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과 피. 주님의 고통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금식하며 경건하게 한주간을 지냅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주님의 고통도 느껴봅니다.

We observe this upcoming week as Holy Week or Passion Week. Preparing a message, I meditated on how my heart should be to enter the Holy Week. Every year we seem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ffering too sentimentally or emotionally. The scarlet color blood drops flowing down on the exhausted face of Jesus pressed down by crown of thick thorns. The rough long nails pierced through hands and feet, pain so excruciating that he cannot straighten his body, the water and blood that squirted out from his sides being speared through. Overwhelmed by the Lord’s suffering, I observe this week in reverence, fasting. In Good Friday worship service, I get to feel the Lord’s suffering as if I have been crucified.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강단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꽃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만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한주동안 놀려 있던, 숨겨져 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잘난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만 했으면 됐어. 한 주 동안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 어떻게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 아무리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했더라도 또다시 제자리입니다.

Next Sunday is Easter. This pulpit will be filled with lily flowers that symbolize the resurrection. "He arose, He arose! Hallelujah! Christ arose!"

One amazing thing is that not only our Lord arose again in the tomb, but our proud and selfish heart, which had been suppressed during the week, arose again too. "One week is good enough. I lived piously for a week. But, how can I live like this my entire life?" No matter how emotionally and rationally we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the Lord, we have again returned to our old ways.

‘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나? 왜 꼭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을까?’

이번 한 주 고난주간동안 이 두가지 물음을 깊이, 심각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복음의 깊은 샘물을 맛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모르는

컵니다.

‘Why did the Lord suffer? Why did we need so much blood on the cross?’

Please meditate deeply and seriously on these two questions during this week of suffering. If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not found, we cannot taste the deep spring water of the gospel. We may shout Hosanna with our lips, but we may not know why He came to us today.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쓴 시이지요.

묵상 가운데, 다윗의 시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로 들립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 23:44-46)

Today's text is David's poem. David wrote this poem in the midst of pain, and despair, and while waiting for God's help. In meditation, the poem of David, appear to sound like the "Lord's Prayer" on the cross.

Luke records the end of the Lord as follows:

...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for the sun stopped shining.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Luke 23:44-46)

오늘 본문 시편 31:5에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 기록돼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 하나이다. (개역개정)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새번역)

Today's text Psalm 31:5 also records exactly the same words.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NIV).

I entrust my life to your hand. (RNKSV)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던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젓 먹던 힘까지 다 쓰고, 용서하며 안간힘 다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주님. 포로 된 자를 자유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물론 이 폭탄선언이 가져올 결과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곧 ‘예수를 못박아라!’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과 이번 주 3-4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Our Lord has come not to live but to die on earth. We struggle hard to live our best in this place of despair and death. We try our hardest, but the Lord is exactly opposite. The Lord who makes the blind see, allows the crippled person to walk, frees the captives, and even raises the dead, why must such Lord die on the cross?

If He wanted, He could easily have avoided the cross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But, the Lord says, "I must die for you." The Lord knew, of course, the consequences of this explosive declaration. Those who were crying out "Hosanna" soon cried out, "Crucify Jesus!" How could this happen? This all

happened in only 3-4 days of this very week.

우리 주님은 'Hosanna!'가 'Crucify him!' 으로 바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한번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세요. '호산나!' 를 외치지만, 주님 귀에는 '십자가에 못박으라!' 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주님은 한주 사이에 참으로 엄청난 일을 겪으십니다. 그냥 놔두기라도 할 것이지. 하루는 자기들의 임금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 날엔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곧 '주님의 기도'가 됩니다.

Our Lord knew beforehand that "Hosanna!" would change to "Crucify Him!" Suppose that you were to become the Lord, ride on a donkey and enter Jerusalem. People may cry out "Hosanna!", But the Lord hears it in His ears, "Crucify!" Within a week the Lord went through the horrendous events. One day they were wildly claiming Him as their king, and the next day they wanted to crucify Him. He was a perfect God, but at the same time a perfect man. Therefore, David's prayer becomes the "Lord's Prayer."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뼈마져 녹아 버렸습니다. (시편 31:9-10)

Be merciful to me, Lord, for I am in distress; my eyes grow weak with sorrow, my soul and body with grief. My life is consumed by anguish...my bones grow weak. (Psalm 31:9-10)

어쩌면 우리도 지금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절망과 죽음 앞에서 이제 '깨진 그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그릇, 천한 그릇은 어디라도 쓸데가 있지만, 깨진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존재라고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저한 무기력함 가운데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Maybe we are also now praying the same as the Lord's. We have now become a "broken dish" in the face of the ever-present desperation and death. Small or cheap dish may retain some usefulness somewhere, but broken dish are useless. Have you ever felt that you are worthless? Have you ever been frustrated by utter helplessness?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철저하게 의심해 보세요. 끝까지 고민해 보세요.' 성경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이해과목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창세기 1장이 믿어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합니다.

When I lead the Bible study, I say to the one who professes that it's hard to believe the Word. 'Brother, sister, please question it thoroughly, and agonize to the end.' The Bible is not a subject of memorization. It is not a subject of understanding. You and I cannot understand with our intelligence. The moment we confess that we cannot believe, the grace of God will be flowing onto us. Genesis 1 is believable, and then we confess Maranatha, "Amen, Our Lord Jesus, come onto us."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난 삼 년간의 화려한 사역도 이제 다 깨어 버리십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한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What does it mean? If I am not broken, I cannot believe. Our Lord also experienced being thoroughly broken on the cross before God. Somehow the amazing ministry of the last three years appear to be all broken. Why? Not to the Lord himself, but in order to glorify the Father in heaven.

고난의 목적은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The purpose of suffering is not pain and sorrow but "learning".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빚어 주십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인생의 목표로 가득 찬 질그릇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난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뭐든지 붙잡습니다. 먼저 내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In time of hardship God renews you and me again. We have to break the dish that is filled with myself, my family, and the goals of my life. When suffering approaches, we automatically take a defensive posture. By any means we try not to be washed away by the tsunami of suffering and want to hold onto anything. First we rely on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whatever we have. Others may hold on to the Lord. But there is a trap here.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가?’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주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안됩니다. 세상이라는 밧줄은 보기에는 든직해 보여도, 매달리면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환란이나 역경,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With what kind of heart do you hold onto the Lord?" It is an important question. The Lord should not be one of the many that I am holding onto. The rope of the world may look good in appearance but it is a rotten rope that will break when we hang onto it. How about our Lord's? It is a tough rope that can never be broken by any tribulation, adversity, or anything else in the world

고난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밧줄을 붙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가지 동아줄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고난가운데 늘 방황하는 이유는 세상과 주님, 두 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님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해결사’ 주님, 아니면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 만약 해결사 주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몇 일 안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박아라!’ 외치며.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라고 외쳤던 희망 전도사가 남편과 동반자살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수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희망을 붙잡지 못한 슬픈 에피소드입니다.

Period of trial is a time for decision. It is time to choose which rope to hold on to. Unfortunately, you and I can choose only one rope. The reason why we always wander during hardships is because we are holding on to both the world and the Lord. In another words, here's how we have to decide which lord to choose. 'The troubleshooter' or Christ, 'The Savior' Lord. If we want the Fixer Lord, we will crucify the Lord again within a few days, shouting passionately, 'Crucify Jesus right away!' A preacher, known as a messenger of hope, who exhorted 'You may give up meals but not hope' committed suicide with her husband. This is a sad episode which shows how fleeting the worldly hope is and how the person who preached hope to many people failed to hold on to hope herself.

모든 불행은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사순절동안 ‘불평그만운동’ 팔찌를 나눠주고, 불평을 좀 참는 훈련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팔찌를 이쪽 팔에서 저쪽 팔로 바꿔 매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어떤 교우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정신없이 바꿔 차는지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우는 불평만 참아도 정말 놀라운 영적성정이 이뤄진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 하는 주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하는 주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나?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All unhappiness begins with complaining.

Once, ‘stop complaint bracelets’ were handed out during the Lent as a training to refrain from complaining. Every time a participant complained, he/she changed the bracelet from one arm to the other arm to renew the commitment. A church member said that he/she switched the bracelet so many times a day to the extent of feeling dizzy. Another church member confessed that an amazing spiritual growth was achieved just by refraining from complaining. The passion week is a week of "gratitude" rather than a week of "complaining", in the midst of hardships. It's time to give thanks to the Lord, meditating ‘Why did the Lord bear the cross on our behalf?’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v.21)**

Praise be to the Lord, for he showed me the wonders of his love when I was in a city under siege. (v.21)

사방으로 우거 씬을 당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매일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When we are suffering, let's concentrate on God's grace granted to us and not as a place of death under attack from all directions. I have suggestions on the specific ways you can practice at your home every day during this passion week.

오늘 종려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책망하실까’ 대화하며 기도해 보세요.

Have a home worship service this Palm Sunday evening and pray and talk about what He would be pleased or displeased with if Jesus should come to our homes.

월요일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집안을 청소하며, 가족의 체취를 더욱 느끼게 되고 가족애가 깊어질 것입니다.

Monday is ' the temple-cleaning Day '. If you clean the house, it will help feel the family's love (body smell) and strengthen the family tie.

화요일은 ‘불평 없이 살아보는 날’ 입니다.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불평 없이 살아본 결과에 대해 성공담과 실패담을 나눠 보세요.

Tuesday is ' A complaint-free day'. Have a Thanksgiving worship and share the success and failure stories in living a complaint-free life.

수요일은 ‘침묵의 날’ 입니다. 주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하루 종일 휴식하면서 침묵하셨는데, 우리도 ‘미디어

금식의 날' 로 지켜보십시오.

Wednesday is the day of silence. As the Lord went to the House of Bethany Lazarus and rested all day, let's keep it as the "day of media fasting."

목요일은 '성만찬과 세족식의 날' 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세족식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Thursday is the 'day of Sacrament and foot-washing ceremony '. Parents and children wash each other's feet and share the love of the Lord.

성(聖)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식하며, 고통받는 친척이나 환우를 방문해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Sacred/Good Friday is the day when the Lord was crucified and died. Fast and visit suffering relatives and friends and comfort and pray for them.

토요일은 '무덤의 날' 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자며 부활의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Saturday is ' Grave Day '. Meditate on the deeds of Jesus during the passion week. The whole family sleep together in a room and share the dream of the resurrection.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묵상은 늘 두 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하나는 다소 평평하지만 흙먼지 펄펄 나는, 굽은 돌들이 박혀 있는 동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탈진 언덕입니다. 동산바닥에는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During the passion week, our meditation should focus on two places. One is a dusty garden somewhat flat, but studded with coarse stones. The other is a sloppy hill. In the garden floor, the sweat droplets of prayer are smeared like drops of blood. On the hill are the stains of the blood of the cross.

겔세마네 동산이 없는 골고다 언덕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 자주 이 동산에 오셨고, 그 곳에서 미리 언덕을 경험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 앞에 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동산에 '특별기도' 가신 거라고.

We can't even imagine the hills of the Golgodai without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Lord often visited this garden 'as a habit' and there he looked over the hills. We at times mistakenly think that the Lord went to the garden to give 'a special prayer' to find ways to avoid his impending death at the cross.

겔세마네는 우리 주님께 결코 낯선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가시던 기도 골방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힘쓰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그 분의 찢림이 우리의 상함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너무 성급하게 언덕에만 가려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올해도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 - 주님과 함께 언덕 위에서 못박히는 것 - 를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뻔뻔하게 주님을 언덕 위 십자가에 남겨둔 채 혼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속으로,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Gethsemane was not a strange or a special place to our Lord. It was a prayer closet that He habitually visited. Passion Week is the time for us to make efforts to spontaneously get used to a holy habit of the Lord.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look at the Lord on the Cross with loving eyes and to feel pain of his

wounds. We always rush to the hills too quickly. So after the Lent, we are confident that we have done the religious duty this year - to be nailed on the cross with the Lord on a hill. We shamelessly rejoice resurrection leaving the Lord on the Cross on the hill. And again, we return to the secular daily life.

왜 해마다 똑 같은 일을 반복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의 동산'은 '죽음의 언덕'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미리 언덕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와싱턴인교회 교우 여러분을 이 소중한 기도의 동산에 초대합니다. 동산 없는 언덕은 무의미 합니다. 동산없이 언덕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에 붙잡힌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지기가 됩시다. 주님처럼 훨씬 더 힘든,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v.24)

I thought about why we would repeat the same thing each year. 'The Garden of Prayer' is the place to prepare for 'the hill of Death'. This is the place to experience the hills beforehand.

Dear beloved church members, I invite you to this precious garden of prayer. A hill without a garden is meaningless. We can't rise to a hill without going through a garden. Let's be a beautiful gardener of prayer who is captured in holy habits, as the Lord. Like the Lord, let's endure a much harder, difficult path with joy.

Give strength to those who wait on him. Take courage. (V.24)